



원·엔 환율이 9년1개월만에 780원대로 하락한 12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외환딜러들이 숨가쁘게 들어오는 매도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00엔당 789.10원을 나타내 지난 1997년 11월 14일의 784.30원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9년 1개월만에 780원대 '추락'

원·엔 환율이 9년1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엔당 780원대로 떨어졌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0엔당 789.10원을 기록하며 지난 97년 11월14일 784.30원 이후 9년1개월만에 처음으로 780원대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시장에선 역외세력이 엔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면서 원·엔 환율을 하락시켰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달러당 3.30원 떨어진 922.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 참가자들은 열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FRB) 의장이 달러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전망을 제시하며 달러 매도세를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정철수기자 bungy@

신한銀 이어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동참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동참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두 은행이 대출을 억제키로 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한동안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5천만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점 차원에서 자금용도 등을 철저히 검증해 용도확인이 되지 않거나 투기성 대출을 의심되는 건은 대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5천만원 이상 대출은 우리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점의 대출 영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은행은 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시장금리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달들어 지난 8일까지 6영업일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천426억원과 2천380억원 급증했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토지보상금 대신 현물 보상”

임영록 재정부 차관보 집값 안정 위해 검토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시중 유동성이 과잉 수준은 아니지만 실물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연간 3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각종 거시·미시 정책 노력을 병행해 내수와 고용부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신명속의 SBS전망대’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시장 및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임 차관보는 “시중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가 2% 초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초과 공급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내집 마련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기세가 남아있어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

시장에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에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임 차관보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시중 유동성 확대에 나타나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국면에 진입했지만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 향후 주택공급 차질 우려, 과도한 유동성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면서 “11·15에서 제시한 공급로드맵과 8.31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14일부터 확대 적용

민간 임대주택 부도나도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조치가 모든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되며 꽤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조치가 14일부터는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증에 들지 않으면 1천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작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한 단지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미뤘었다.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14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상품에 전부 가입하게 된 것이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구당 평균 월 1만원 수준이며 사업자는 우선 보증료를 납부한 뒤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만명이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르면 고정금리 대출 잘 나가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혼합금리 대출 포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경우 11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3조3천461억원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조1천550억원으로 34.5%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의 월별 신규 주택담보대출액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7월 1.1%(197억원), 8월 3.4%(548억원) 수준이었다가 9월 20.4%(4천307억원), 10월 32.5%(6천991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만기별로는 20년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고, 10~20년은 55.7%, 3년 이하는 10.3%를 차지했다. 상환방법으로는 분할상환(89.4%)이, 일시상환(10.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6일부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상품인 ‘포 유 장기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을 기존의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고정금리 상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은 뒤 최초 3~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 받고 나머지 대출기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15~35년의 대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1월 기준으로 3년 고정금리는 최저 5.92%, 5년 고정금리는 최저 5.99%가 적용되며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면 3·6·12개월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大選 집값 상승요인 될까

내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대통령 선거’가 꼽히고 있지만 역대 대선과 집값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설산업전략연구소가 국민의 주택가격 시계열 통계를 이용해 과거 13-16대 대선과 집값 변동을 살펴본 결과 대선이 치러진 해의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아파트값이 4.2% 떨어졌고, 이후 1년 역시 2.8%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 ‘선거 특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97년 12월) 때는 선거 직전 11개월간 5.3%가 올랐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후 1년간 13.6%가 하락했다. 고금리 속에서 집값 하

역대 선거 뚜렷한 연관성 없어 공급량·정부정책이 더 큰 변수

은 3차례 오른 반면 1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 이후 1년 동안 아파트값은 2차례는 올랐지만, 2차례는 하락해 일관성이 없었다. 국민은행 집값 통계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2월 13대 대선의 경우 그해 1월부터 선거 전 달까지 11개월간 전국 아파트값은 9% 올랐으나 선거 이후 1년 동안은 2배가 넘는 20%가 상승했다. 대선 후보로 나선 고 정주영 현대 그룹 회장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자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부동산 정책대결도 뜨거웠다. 그러나 하연 김용삼 후보가 당선된 14대 대선(1992년 12월)에서는 그해 선거 전 달까지 11개월간 전국

락은 불가피했던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2002년 12월) 때는 선거 직전 11개월간 22.3%나 폭등했고 이후 1년간은 9.6% 올랐다. 이는 98-99년 외환위기 당시 주택공급 감소로 입주량이 부족하고,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내년 집값은 대선 변수보다는 주택 공급 상황과 금리, 정부정책 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이나 규제완화 등의 공약이 발표될 경우 해당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경제 3년째 잠재성장률 밀돌아”

삼성경제연구원 “내년 세계경제 둔화... 유가 50弗선” 전망

삼성경제연구원은 내년엔 전반적인 세계경제 성장세가 하락함에 따라 원유 수요도 줄어 연평균 50달러 후반대에 안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금리도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또 내년 잠재성장률은 4.7%로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4.3% 성장하는 데 그친다면 올해를 제외하고 2003년부터 3년째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12일 정보사이

수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세로의 성장패턴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내내의 여건을 보면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주택경기 둔화로 하락함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이 3.3%로 낮아지고 달리는 다른나라와의 금리격차 축소로 약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하지만 유가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하락해 50달러 후반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신영씨빙	인쇄 후 가공/검사 포장 작업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5	018-619-2793
(주)이프로	사무관리/웹디자인/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512-8112
상이엔탈	정규직 병행/영업관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5	062-652-7418
(주)상오정밀	사출금형 조립 사원 모집	고졸/경력2년	1800~2000	12/15	062-955-2900
정광금속(주)	프라스틱 도금액 분석 및 도금공정 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16	062-955-6081
전남대 생물공정실	남 연구관련 실험 보조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18	062-530-4916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9	062-369-0790
(주)주연	사무관리/총무부/영업부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373-9012
대우캐피탈 대보건설(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모집	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20	062-952-1054
동양생명	ITM1위보사콜센터 상담원 공채모집(주5일,TV방송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2-518-2769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524-6900
okvr(오케이브이알)	웹 디자인/정규직 모집 경력자우대	고졸/경력3년	1800~2000	12/22	062-350-0071
심포니에너지(주)	전기공사 시공관리 경력자 채용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22	062-949-7767
일원기술공사	환경영향평가 직원 모집	대졸/경력3년	2400~2600	12/22	062-251-884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플래시 칩보다 500~1,000배 빠른 최첨단 ‘상변화’ 메모리칩 개발

미국과 대만, 독일 3국 합동 연구진이 현재 널리 쓰이는 ‘플래시’ 메모리 칩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최첨단 ‘상변화(phase-change)’ 메모리 칩을 개발했다고 블룸버그와 AFP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미 IBM과 대만 ‘매크로닉스 인터내셔널’, 독일의 ‘키문다’ 등 3사는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 ‘플래시’ 메모리 칩보다 속도가 500~1천배나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량은 절반밖에 안되고 크기도 더 작은 ‘상변화’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상변화’ 메모리 칩이 상용화되면 컴퓨터는 물론 MP3나 디지털 카메라 등 현재 플래시 칩을 사용하는 기기가 더욱 첨단화하는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게 이들 회사의 기대다. 3사 연구진은 미 캘리포니아 샌너제이 실리콘 벨리에 있는 IBM의 ‘알마덴 연구소’에서 ‘상변화’ 메모리 칩의 원료가 되는 새로운 물질인 복합 반도체 합금을 개발했다. /연합뉴스

세영건설, 수원지구에 499세대 분양

세영건설은 광주 수원지구에 ‘퍼스트 에비뉴’아파트 499세대를 분양한다. ‘퍼스트 에비뉴’는 지상 18~25층, 8개동 규모로 40평형 78세대를 비롯, 47평형 340세대, 50평형 81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200평의 주부 풀평단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 디자인, 마감재 등을 채택했으며, 광주 최초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산정했다. 평당 분양가는 평당 635만~650만원 선이다. 단지 인근에 풍영정원과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으며, 동간 거리가 넓어 채광, 조망권 등이 잘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은 신세계백화점 사거리가 있으며, 오는 15일 오픈한다. 문의 062-367-82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